

# 김현의 유년시절과 기독교 사상

## - 김현 비평의 원체험적 장소

이 명 원\*

### 차 례

- |                    |                         |
|--------------------|-------------------------|
| 1. 사상의 원체험         | 3. 기독교적 원죄의식과 문학        |
| 2. 김현의 유년시절과 기독교문제 | 4. 김현의 실제비평과 기독교 사상의 영향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문학평론가 김현의 비평적 원체험의 근거가 기독교 사상에 있었음을 밝히기 위하여 쓰여진다. 문학평론가 김현에게 진정한 사상형성의 원체험이 되었던 것은 기독교이며, 이 기독교 사상의 내면화와 이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욕망이 그로 하여금 사상으로서의 4.19혁명을 수용하게 만들고 서유럽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지적 토대가 되었던 계몽주의의 수용으로 이어졌으나, 이조차도 정신사적 경건주의에 용해됨으로써 김현 특유의 문학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이 논문의 가설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그의 비평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그의 가계와, 정경옥, 외삼촌이었던 신학자 정경옥의

---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역사비평학, 그가 또 하나의 아버지로 거론하고 있는 이국선 목사의 현실주의적 해방신학, 그리고 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욕적 합리주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김현의 비평적 여정 전체를 검토해 보면, 김현에게 기독교 사상은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그의 등단작인 『나르시스 시론』(1962)에서 탐구하고자 했던 주제가 악(惡)의 문제였는데, 이는 기독교적 원죄의식에 대한 해명 없이는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문학사』(1973)를 기술하면서도 안창호의 준비론 사상과 함석헌·김교신의 무교회주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더 멀리는 조선후기의 북학파의 사상을 서학(기독교)의 도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김현에게 매우 본질적인 물음의 근거였음을 보여준다.

김현이 평생에 걸쳐 탐구한 욕망과 죄,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그 자체가 기독교적 사유의 원질이라 할 수 있다. 김현이 사유한 세계의 혼란은 폭력을 포함하여 욕망이 여과 없이 표출될 때 나타나며, 그것을 억압할 때 또 다른 혼란이 나타난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세속주의의 견지에서 김현은 욕망에 대한 끈질긴 유희를 긍정하지만, 그것을 승화의 형태로 약화시키고 증류시키는 ‘과잉의 제거’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았고, 문학은 그 욕망의 노골적인 발현과 승화 사이의 긴장이 탄력적으로 제기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현이 현실보다는 그것을 중계하는 언어에 대한 민감한 자의식을 보여주었는데 이 역시 기독교 사상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김현이 정신분석학과 신화분석을 통한 문학적 분석의 유형화를 피한 것 역시 기독교 사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가령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라는 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라르에 대한 김현의 분석은 뒤집어 보면, 지라르로 상징되는 기독교적 성화(聖化)와 희생양 이론에 대한 공명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기독교 사상, 해방신학, 역사비평학, 원죄의식, 금욕적 합리주의

## 1. 사상의 원체험 문제

문학평론가 김현(1942-1990)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거의 대부분은 문인들은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견지했다고 반복적으로 갈파된 바 있는 이른바 ‘4.19 세대로서의 자기의식’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김현 역시 평생에 걸쳐 4.19 세대로서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sup>1)</sup> 그런 까닭인지 몰라도, 김현의 문학비평을 분석하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4.19혁명의 중요성을 김현비평의 자유주의적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김현에게 4.19혁명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그 특유의 자유주의적 문학관을 형성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 혁명의 체험이 그의 세계관 형성에 있어 유력한 원체험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김현 자신이 4.19혁명을 일종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간주했고, 특히 그것의 정신사적 의미로서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 사실이며, 한국사의 역사적 변혁기에 김현이 보여준 문학주의자로서의 면모가 참여문학과 민족문학에 대한 일관된 보수적 태도였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그에게 4.19 혁명이란 프랑스 혁명과 같은 민중봉기로서보다는 정신사적 경건주의(pietism)와 같은 내향적 성향체계로 침전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른바 4.19세대 의식과 관련하여 김현을 향해 던져진 질문과 분석은

1) 생전의 마지막 평론집인 『분석과 해석』에서의 다음 진술은 4.19세대로서의 자기의식이 지속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의 교정을 보면서 나는 두 가지의 기이한 체험을 하였다. 내 육체적 나이는 늙었지만, 내 정신의 나이는 언제나 1960년의 18세에 멈춰져 있었다. 나는 거의 언제나 4.19 세대로서 사유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김현문학전집』, 제7권, 문학과지성사, 1996, 13쪽.

많으나, 우리는 김현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은 던져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토록 4.19혁명을 강조했던 비평가 김현이 어찌하여 참여문학과 민족문학을 포함한 문학의 현실개입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의문. 둘째, 이 질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는 것은 어렵겠으나 그 자신이 호남출신(전라남도 진도)으로 박정희 독재와 광주민중항쟁을 목도했으면서도, 타계할 때까지 이에 대한 명료한 비평적 입장표명이나 텍스트 분석을 가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의문은 김현의 문학비평을 오랫동안 읽어 온 필자가 지속적으로 품어왔던 개인적 의혹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단지 개인적 호기심에 멈추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던지고자 하는 질문의 요체는 이런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이 어찌면 김현 그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물음과 믿음 사이에서 고투를 벌였던 기독교 사상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문학평론가 김현에게 진정한 사상형성의 원체험이 되었던 것은 기독교이며, 이 기독교 사상의 내면화와 이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욕망이 그로 하여금 사상으로서의 4.19혁명을 수용하게 만들고 서유럽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지적 토대가 되었던 계몽주의의 수용으로 이어졌으나, 이조차도 정신사적 경건주의에 용해됨으로써 김현 특유의 문학주의가 형성되었다는 가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분석의 시선을 그의 유년기로 이끌고 갈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김현에 대한 정신분석적 탐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상적 원체험으로서의 기독교가 김현의 비평이 변주·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끈질기게 지속되는 영향력과 그 파장일 것이고, 그것이 그의 문학론의 핵심적인 의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분석의 준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인 것이다.

## 2. 김현의 유년시절과 기독교

김현의 문학비평을 검토하면서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세계관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이다”로 요약될 수 있는 ‘비극적 세계관’의 자장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김현은 문학에 대한 일관된 심념과 열정으로 비평적 작업을 지속해나갔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김현에게 문학이란 비극적 세계 안에서 결코 구원의 가능성을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런 고통스런 사실 때문에 더욱 절실해지는 기도와 같은 것이었다. 구원의 불확실성이 명백해지면 질수록, 어두운 방 안에서의 기도의 열정은 더욱 높아진다. 김현에게 문학은 그런 것이었다. 문학을 통한 현실개조나 유토피아의 건설이 거의 도로에 가까운 희망일지라도,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문학의 반성적 성찰능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김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에 대한 김현의 태도는 기독교 사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비극적 세계관’ 일반과 매우 닮아 있다. 김현 자신도 그의 이론적 작업에 강렬한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이런 기독교 사상의 비극적 세계관의 구조를 자못 투명하게 밝히고자 했던 것은 프랑스의 비평가 루시앙 골드만(L. Goldmann)이었다.

골드만의 저작 가운데 비극적 세계관의 구조를 명백하게 밝히고자 했던 『숨은 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되는 것은 『판세』의 저자 파스칼의 비극적 세계관의 기저에 안센주의(jansenism)의 사상적 흐름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안센주의는 네덜란드 사람 코르넬리우스 안센(Cornelius Jansen)에 의해 파급된 것으로 17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신학운동을 일컫는다. 안센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

인하고 은총의 예정불가론을 주장했다. 안센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낮은 존재이고 전적으로 창조주에게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신에 의해 인간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신에 속한 것이니, 지상의 인간이 종교적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sup>2)</sup>

이런 신학관을 견지했기에 안센주의자에게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였다. 문제는 구원의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도시의 흑암을 지속해야 한다는 아이러니다. 안세니스트에게 세속은 한편에서는 비대한 교회권력에 장악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왕정으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그런데 안세니스트는 현실의 교회권력에도, 그렇다고 세속의 절대권력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역시 하느님 나라일 것이나, 신이 숨어버린 세속생활이란 영혼과 육체가 따로 놀듯 자의식의 분열은 피할 길이 없었다.

이런 분열은 안센주의자에게 두 가지 유력한 삶의 태도를 일반화했다. 첫째, 교회 및 세상과의 일체의 타협 및 참여를 거부하는 종교적 은둔이 그것이다. 둘째, 신조차도 상대화하면서 세상 속에서 바로 그 세상을 거부하는 비극적 삶을 지속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물론 이런 태도의 전형을 체화한 인물은 『팡세』의 저자였다는 것이 플드만의 주장이다. 그에게 신이란 숨어있음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차안에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서도 우리 나약한 인간이 이 세속도시에서 신의 절대성과 순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는 부패한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봄으로써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김현에게 문학이 갖고 있는 의미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파스칼에게 있어서의 안센주의와 유사한 성격을 띤 것이었다. 파스칼이 신의 절대성과 순수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세속도시에서의 지속적인 종교적 명상에 직면하는 것과 비슷하게, 김현은 문학의 절대성과 순수성을

2) 신미경, 『프랑스 문학사회학』, 동문선, 2003, 16쪽.

신뢰하면서, 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중요성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문학을 통한 유토피아의 즉각적인 실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계하였고, 세속적 권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채, 그렇다고 당대의 진보적 문학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현실참여에 나서지는 않은 채, 그는 자못 끈질기게 문학의 존재론을 음미하고 성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환기했던 것이다. 김현에게 문학은 종교적인 구원과 유사할 정도로 절대적인 가치의 자리였지만, 문학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간명하게 규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없이 경계했다.

물론 한국의 김현은 프랑스의 파스칼이 아니다. 당대의 한국사회 역시 프랑스와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김현은 한국의 지식인이었고, 김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학을 통한 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었다. 그렇다면 정작 김현에게 기독교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정선의 연보<sup>3)</sup>와 김현의 사후 출간된 『행복한 책읽기』(1992)에서의 고백을 토대로 김현에게 기독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김현의 유년기의 사상 형성에서 명백한 중요성을 갖는 것은 기독교(개신교)다. 먼저 김현의 가계가 독실한 기독교 가문이었다는 점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의 부모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김현에게 외삼촌이 되는 정경옥이 한국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신학자라는 사실이다. 김현의 문학비평을 논의하면서 외삼촌인 신학자 정경옥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자는 없었다. 그러나 김현 비평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우회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신학자 정경옥(鄭景玉, 1903-1945)은 누구인가. 1930년대 한국신학을 검토한 유동식의 『한국신학의 광맥』을 보면, 개신교 목사인 박

3) 홍정선, 「연보: '뜨거운 상징'의 생애」, 『김현문학전집』, 제16권, 문학과지성사, 1993.

형룡, 김재준, 정경옥이 각각 근본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한국신학의 3대초석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로, 김현의 외삼촌 정경옥은 한국 감리교의 초석을 세운 신학자였다.<sup>4)</sup>

정경옥은 1903년 전라남도 진도의 부잣집 큰 아들로 태어났다. 진도에서 소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으나, 1919년 3.1운동 학생시위에 참가했다가 제적당한다. 제적 직후 고향으로 내려와 한학을 공부하다가 이후 일본에 유학, 도쿄의 아오야마학원(青山學院)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1924년에는 감리교신학교 영문과에 입학하여 1928년에 졸업했다. 졸업 직후에는 미국에 유학하여 개릿신학교를 1930년에 졸업하고 1931년 9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조직신학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1931년부터는 감리교신학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게 되지만, 1937년에 이르러 돌연 교수직을 사직하고 고향인 진도로 낙향했다. 이후 예수의 생애를 그린 『그는 이렇게 살았다』와 『기독교신학개론』(1939)을 집필했으며, 고향인 진도와 광주에서 목회활동을 하다 1944년 맹장염으로 사망했다.

정경옥의 신학적 세계관은 ‘자유주의’로 분류되지만, 그의 신학관의 형성에는 존 웨슬리로부터 칼 바르트에 이르는 다양한 서구신학이 용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정경옥의 신학사상에서 특징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구원중심적 영성’이다. 이것은 예수의 사상과 인격, 구속의 은총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히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그 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경옥은 구속이 없는 기독교는 참된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삶 속에서 자기까지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째, 정경옥은 신이 자연의 가치 안에 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신의 거룩한 뜻에 의해 자연이 창조되었기에, 자연은 속된 곳이 아닌 성소이며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적극 인정되어야 한다는 시

4)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다산글방, 2003, 140-143쪽 참조.



각으로 연결된다. 셋째, 이런 특징이 그의 신학에 이성주의적 관점이 도입된 계기가 되었다. 넷째, 정경옥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생활의 영성을 강조했다. 즉 생활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거룩해져야 하며,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이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sup>5)</sup>

특히 필자는 성경연구에 있어 ‘역사비평학’을 수용하는 그의 시각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대의 성서에 대한 태도는 먼저 성서의 내용을 아무 가리움이 없이 그대로 비판하고 연구하고 음미하고 생명으로 삼자는 데 있다. 선입견을 가지고 신학적 의장을 씌워서 해석하려는 것은 결국은 성서를 성서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이나 교리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태도밖에 더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현대적 해석에 의하면 성서는 성서 그대로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비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성서해석학의 시각은 “신학은 종교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다”라는 정경옥 신학의 핵심을 형성한다. 이러한 정경옥의 성서해석학은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김현이 보여준 비평가로서의 태도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김현은 정경옥이 성격을 “자기의 의견이나 교리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태도와 유사하게, 문학작품을 현실의 개조나 변혁을 위한 효용론적 목적이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문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식의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던 것이다.

물론 김현 자신이 정경옥의 신학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단정하

5) 이상의 분석은 김영명, 『정경옥 신학 다시 읽기』, 한국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월례발표회, 2007. 9를 참조할 것.

6) 정경옥, 『기독교신학개론』,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396쪽. 김영명, 위의 글에서 재인용.

기는 어렵다. 실제로 김현이 해방직전에 사망한 외삼촌과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이나 지적교류를 펼쳤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의 사상형성의 여명기에 신학자인 외삼촌 정경옥의 존재는 매우 강력한 사상의 기저를 형성하게 하는 근거로 작동했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그것은 외삼촌 정경옥 뿐만 아니라, 김현의 가계 전체가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현의 부모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김현은 1948년 목포로 이주하는 부모를 따라 1948년 7월 목포 북교국민학교로 전학한다. 부친은 북교동 127번지 공설시장 앞에서 구세약국(救世藥局)을 열어 양약 도매업에 종사하는 한편, 목포 중앙교회의 재정장료로 봉직하게 된다. 김현 역시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지속한다. 홍정선에 따르면, 김현의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경북고 3학년 때인 17세 때부터였다고 한다. 보들레르, 지드, 카뮈 등의 불문학 작품을 읽고 난 직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현의 기독교 신자로서의 생활은 대학시절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 따르면 대학입학 후에도 김현은 종로 3가에 있는 초동교회에 다녔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전기적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김현이 문학과와의 만남을 통해, 또 4.19라는 역사적 체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의식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기독교 사상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현에게 기독교가 끼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에 진학할 결심을 할 정도로 끈질긴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김현의 기독교 사상 형성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존재로 외삼촌 정경옥 말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사람은 김현이 유고일기인 『행복한 책읽기』에서 “또 하나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명명하고 있는 신학자 이국선 목사다.

이국선 목사의 죽음은 또 하나의 아버지의 죽음이다. 그 아버지는 청교도적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는 52년 1월부터 63년 6월까지 11년 5개월을 목포 중앙교회에서 사목했다. 나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떡과 김치를 목사관에 가져가던 날 처음으로 그와 그의 식구들을 봤다.(.....) 그 뒤로 나는 목사관을 제 집 드나들 듯 들락거렸다. 집에서 가까웠으며, 고전스러운 돌집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목사관의 이방인적인 청결함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목사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었고, 거기에는 또한 나보다 어린 계집아이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5, 6학년생이었던 나는 아마도 성을 알기 시작하였던 모양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흥미를 느꼈던 모양이었다. 그 성은 신성성이란 다른 이름을 갖고 나타났던 것이다. 나는 그의 설교를 매주 공들여 노트하였으며, 그것은 상당한 분량에 이르렀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쓰던 손바닥만한 노트를 기억하고 있다. 그의 전언의 상당수를 나는 이제 기억할 수 없지만, 타블라 라사를 설명하던 그의 목소리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외침보다도, 나에게는 그 타블라 라사가 훨씬 더 무서웠다. 나는 틈만 나면 내 손과 얼굴을 씻었으며, 그것은 거의 병적으로 되어갔다. 성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 나에게 나타났다. 야노증이 시작된 것도 그때쯤이었다. 그리고 57년에 나는 서울로 올라왔으며, 그가 목포중앙교회를 떠난 뒤에도 인천으로 그를 찾아가 뵈곤 하였다. 인천에서 뵈 그는 도시산업선교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에야 그의 엄격성, 깨끗함이 청빈함, 정직함, 진지함의 다른 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가난의 엄청난 도덕적 무게에 짓눌리곤 하였다. 나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러나 그는 내가 대학을 마친 뒤 신학대학에 가보겠다는 내 생각을 내 보였을 때, 그것을 극력 말렸다. 너 같이 편하게 자란 아이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아버지이며 스승이었다. 그 스승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고재식이다. 묘소에서 그는 거의 실신할 듯 하였다. 아버지와 스승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좋은 제자를 두었다.<sup>7)</sup>

김현 자신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아버지이며 스승”이라고 추모하

7) 『김현문학전집』, 제15권, 46-47쪽.

고 있는 이국선(李國善)목사는 누구인가.

이국선 목사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김현이 언급하고 있는 신학자 고재식(高在植)의 『이국선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sup>8)</sup>이라는 기록이 유일하다. 고재식은 1939년 전남 신안에서 출생했으며 김현이 경북고로 진학하기 전 잠시 수학했던 목포 문태고를 졸업한 실천신학자다. 생전의 그는 『사회문제와 기독교 윤리』(1984), 『해방신학의 이해』(1986) 등의 진보적 신학연구서를 출간하는 한편, 한신대학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으나 200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재식은 유년시절 김현과 함께 목포중앙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회고하고 있는데, 그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바로 전 해에 쓴 글이 위에서 언급한 『이국선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이다.

고재식의 기록을 토대로 이국선 목사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국선 목사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교회의 장로였고 20대까지는 만주에서 살았던 것으로 회고되고 있다. 일본의 동지사(同志社)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는데, 당시 동지사 대학의 학풍은 매우 진보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해방 이후 완도 및 제주도 등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포중앙교회에서 1952년에서 1963년까지 교육목사로 봉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포중앙교회의 연혁에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년부와 대학부의 교육목사로 시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국선 목사가 인천의 도시산업선교로 관심을 돌린 것은 1960년 4.19 혁명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고재식의 기록에 따르면, 이국선 목사는 목포중앙교회에의 설교당시에 다음과 같은 토인비의 명언을 즐겨 인용했다고 한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다.” 이목사는 특히 4.19

8) 고재식, 『이국선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 수유한신교회 자료실  
[http://suyou.org/jboard/?p=detail&code=Hw\\_board\\_14&id=3&page=2](http://suyou.org/jboard/?p=detail&code=Hw_board_14&id=3&page=2).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목회자로서 크나큰 충격을 느꼈던 것 같다. 그는 “자유당 15년 동안에 독재정권 밑에서 부정과 부패가 자행될 때 우리 교회는 이것을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추파를 던졌던 것”이라고 직정적으로 당시의 기독교계를 비판했다.<sup>9)</sup>

고재식은 이국선 목사에게 4.19란 “사상전환의 기폭제”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1963년이 되면 이국선 목사는 목포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게 되며, 그곳에서 도시산업선교활동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이것을 고재식은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으로 인도했던 사건과 연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후 이국선 목사 특유의 기독교 현실주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국선 목사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감사와 노동’이 산업선교의 방향이자 이념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산업선교는 산업사회 조직 속에 있는 모순과 사회악에 대결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봉사자의 입장에서 강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국선 목사는 산업선교 현장에서 ‘동일방직사건’ 등을 포함한 시국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민주화인사였다.

이국선 목사는 한국교회의 전통적 구원관에 반대했다. 그는 인간 편에서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은 교리나 신조를 승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고통에 공명하고 행동할 때 가능해진다는 ‘참여주의’적 시각으로 발전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한 중생의 체험과 구조악에 항거하여 사회정의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국선 목사의 기독교 사상은 이후에 제자인 고재식에 의해 민중신학 또는 해방신학의 이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국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 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9) 고재식, 위의 글.

그런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국선 목사가 이해한 기독교 사상은 “분노의 사랑”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이국선 목사의 기독교 사상을 염두에 두고, 김현의 회고를 다시 읽어보면, 일정한 사상적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국선 목사의 기독교 사상이 민중신학 또는 해방신학의 자장 속에서 현실변혁적인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면, 김현은 그의 기독교 사상을 ‘퓨리탄주의’로 명명할 수 있는 청교도적 금욕사상으로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기독교 사상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거론하고 있는 ‘금욕적 합리주의’에 가깝다. 요컨대 김현의 기독교 사상은 기독교 현실주의의 동적(動的)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대신, 그것의 자기성찰적 윤리성과 금욕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김현의 기독교 사상에 대한 기본인식은 그의 부친에게서 온 것으로 판단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김현은 그의 부친과 또 하나의 아버지인 이국선 목사를 두 개의 타원의 중심 삼아 왕복하기는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부친의 금욕적 기독교 사상에 더 밀도 높게 융합되어 갔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1979)라는 짧은 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 곁에서 생활한 것은 십오륙 년밖에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줄곧 아버지 곁에서 떠나 있었다. 나의 기억에 가장 깊숙이 박혀 있는 아버님은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잠들 무렵에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등의 낯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나를 공중으로 띄워주시고는 서울 보이니? 하고 물어보시던 아버님이고, 또 하나는 축구공을 사달라고 조르다가 안 되어서 어머니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가지고 나가 그것을 산 뒤에 결국 들켜서 지독하게 매를 얻어맞은 나의 뇌리에 박힌 무서운 아버님이다. 아버님은 쾌활함, 자상함과 엄격함, 진지함을 같이 갖추신 분이였다. 아버님의 쾌활함은 본래의 낙천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엄격함

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었으리라. 말하기를 즐기시고 남과 어울려 즐겨 노시는 것을 좋아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은 그것 자체로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는 그분의 낙천주의 때문이었으나, 그분은 그 즐거움의 한계를 철저히 지켰다. 아마도 오랜 기독교 생활에서 우리나라를 그 절제거나 같이 자신을 잘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자주 휩쓸리는 자에게는 실행하기 어려운, 그러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미덕으로 보인다.

아버님의 기독교는 광신자의 기독교가 아니었다. 아버님이 과연 천당이 있다고 믿고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아버님의 기독교는 아마도 그분의 처남인 정경옥 씨의 영향이겠지만, 이 땅에 천국을 세우야 한다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나 한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결국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분에게, 이 삶 밖에 있는 천당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큰 의미를 떨 수 있었을까? 그분은 고통스러운 이 땅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신 분이라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sup>10)</sup>

김현의 가족은 1948년 진도에서 목포로 이주한다. 그의 부친 김요환(金繞煥)은 북교동 127번지 공설시장 앞에서 구세약방(救世藥房)<sup>11)</sup>을

10) 『김현문학전집』, 제14권, 368-369쪽.

11) ‘구세약방’은 ‘백제약방’과 함께 목포지역의 양대 약도매상이었다. 목포의 약도매상들은 충청도 이남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약약을 독점 공급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당시의 구세약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구세약방에 앞선 1946년에 약방도매업을 시작한 백제약방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구세약방의 사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김기운은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백제 약방이라는 상호를 내걸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이었다. 행인의 출입이 빈번한 목포 남교동 사거리에 문을 열자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다른 약방에 비해 약품을 골고루 갖춘 것도 한몫했다. 당시 약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렸기 때문에 누구 얼마나 신속하게 많이 구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렸다. 그는 외국에서 귀환하는 동포들로부터 약을 사들였다. 목포는 호남지역의 관문일 뿐 아니라 남해안 도서지방을 연결해 주는 항구였고 부산이나 제주도처럼 많은 귀환동포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귀환동포의 약을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암 강진 장흥 해남 완도까지 찾아 다니면서 약을 사들였다. 당시는 ‘오일페니실린’과 설파제 ‘다이아진’이 만병통치약으로 과대평가되면서 인기가 높았다.” 이병구, 『백제약방과 약유통 반세기』, 『보건신문』, 2002. 4. 16.

열어 양약 도매업에 종사했다. 당시 충청도 이남의 양약 공급을 장악할 만큼 부친의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 이때 김현의 부친은 동시에 김현이 출석하던 목포중앙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로 봉직하기도 하였다.

위에서의 부친에 대한 김현의 서술에서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기독교의 면모는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거론한 바 있는 금욕적 합리주의에 가깝다. 김현의 부친이 구세약방의 운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교회의 재정장로로 재직하면서 엄격하고 감정을 절제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지문을 읽어보면 그 성격의 유사성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

성도들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초월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그 때문에 현세의 생활이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 지배되고 철저히 합리화되었다. ‘모든 것을 신의 영광을 증대시키기 위하여’라는 입장을 그들만큼 심각히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다.<sup>12)</sup>

김현은 이국선 목사에 대한 회고 일기에서 프로테스탄트의 금욕과 청결함을 연상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평가에 걸 맞는 인물은 그의 부친도 마찬가지다. 현세의 삶이 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고는 직업소명설이라는 독특한 퓨리탄적 실천원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르면, 세속적 생활에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명령되기도 하는 바였다.<sup>13)</sup>

김현의 부친에게서 나타난 삶의 방식 역시 이러한 퓨리타니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구세약국을 운영하면서 착실하게 부를 축적하였지만, 결코 낭비나 유희에 휩쓸리지 않았던 그의 품모는 지상에서의 부의 축적은 신의 축복의 증표라는 퓨리탄적 신앙의 기초에서 나온 것

12)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종선 역, 두리, 1987, 125쪽.

13) 위의 책, 231쪽.



이었다. 평소의 낙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김현의 부친의 생활방식이 엄격하고 검소하였다는 것은 금욕적인 퓨리탄의 직업윤리에 비추어보자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직업노동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활의 충동적 향락은 합리적 금욕의 적이었기 때문이다.<sup>14)</sup>

부친의 기독교에서 김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신적 유산을 상속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비판적 개인주의(원죄의 숙명론)를 들 수 있다.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는 예정설에 기반한 교리는 신자들 개인에게 비판적 개인주의를 심어주었을 것이다. 내세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결코 예측해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개인주의를 강화시킨 데에는 김현이 유년시절 흥미롭게 때는 고통스럽게 내면화한 기독교가 신약(新約)의 예수의 생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쾌적한 낮의 명랑성과 결합하지 않고, 구약(舊約)의 율법적이고 징벌론적인 심판의 공포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부친과의 관계를 회고하는 장면에서 거론하는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등의 서사란 원죄의 발생(아담과 이브)과 최초의 살육(카인과 아벨), 그리고 구원의 불확정성과 이해 불가능성(에서와 야곱)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창세신화의 내러티브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김현은 아버지의 독특한 퓨리탄적 태도, 즉 현세를 낭비하지 않고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교리에서 금욕적이며 합리적인 윤리의식을 내면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김현이 선택한 문학은 이러한 기독교적 사유를 정면에서 회의하고,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금지하고 있는 쾌락과 원죄의 문제를 가장 밀도 높은 수준에서 사유하고 때로는 위반하는 정신의 모험이기에, 김현에게 기독교 사상은 믿음과 의혹의 지속적인 대결적 무의식이 상충하는 고통스러운 동시에 매혹적인 사상의 원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헤게모니적 타협’이라 부를 수 있는 기독교 사상

14) 위의 책, 235쪽.

에 대한 김현의 탐구가 지속되는 것인데, 그는 한편에서는 기독교의 원죄론을 포함한 묵시적 세계관을 내면 깊숙이 수용하는 한편, 그것을 이른바 비판적 합리주의에 의해 상대화시키고 완화시키는 가운데 문학의 창조적 가능성을 탐문하는 방향으로 그의 의식을 선회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문학으로의 전환이라는 이 세계관 차원에서의 ‘분리’가 유연하게 달성된 것은 아니었다.

### 3. 기독교적 원죄의식과 문학

앞에서 우리는 유년기 김현의 기독교 사상과의 관련성을 간단히 논의했다. 외삼촌이었던 신학자 정경옥의 역사비평학, 그가 또 하나의 아버지로 거론하고 있는 이국선 목사의 현실주의적 해방신학, 그리고 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욕적 합리주의는 문학에 입문하기 직전까지 김현의 내면적 사유를 촉진시킨 근거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제기해야 될 또 하나의 의문은 각기 차별적인 이러한 기독교 사상과의 접촉에서 김현이 보여주었던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공포와 이상징후들이다. 특히 이국선 목사에 대한 추억을 회고하는 장면에서 김현은 “나에게는 타블라 라사(tabula rasa)가 훨씬 무서웠다. 나는 틈만 나면 내 손과 얼굴을 씻었으며, 그것은 거의 병적으로 되어갔다”고 고백하고 있다. 일종의 세척강박증이 생겼다는 이야기고, 이와 함께 야뇨증도 생겼다는 것인데, 무엇이 김현으로 하여금 이런 공포를 갖게 한 것일까.

그렇다면 대저 타블로 라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백지의 상태’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로크의 경험주의적 인식론 안에서는 경험과 시간의 축적 속에서 인간의 자기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로크적인 주장이 개진되기 이전의 신학자들은 백지상태의 인

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 플라톤주의로부터 강조된 것은 현세의 삶이란 이데아의 불충분한 결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중세의 신학적 세계관 안에서는 ‘원죄를 짊어진 인간’이라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졌다.

오직 신의 섭리와 구원에 의해 이 ‘원죄’는 속죄될 수 있지만, 문제는 현세의 인간들은 끝없이 세속생활에서 압박해오는 죄의 유혹에 시험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타블로 라사’라는 개념의 아이러니였다. 속죄와 구원, 금지와 위반의 악무한적인 일상의 신앙생활이야말로 기독교사상의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었는데, 김현은 이 순백한 인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죄’의 공포에 무시로 시달렸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의 설명할 수 없는 유년기의 공포와 세척강박증과 야뇨증과 같은 이상징후는 ‘성(性)’에 대한 눈뜸의 과정이 또 다른 ‘성(聖)’에 의해 되비추어지고 금지됨으로써 더욱 강박적인 것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김현의 유년시절 세계관의 원체험적 공간에서의 이러한 세계관의 혼돈상태는 문학에의 끌림을 느끼면서, 또 다른 금지의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은 《한국문학의 위상》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잘 발견된다.

겨울밤에 가슴에 베개를 피고, 해남 물고구마를 늘어붙도록 찌가지고 먹어대며, 이형식에게서 오유경에게로, 그리고 오피리아에서 파우스트로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그러다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켜 호된 꾸지람을 듣는다. 그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소설책을 읽어서는 무엇하려는 것이냐는 푸념이 어머니의 주된 공연 프로그램이었다. 판사나 검사가 되지 않고 문학 나부랭이를 했다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를 꾸짖었다. 그 문학을 나는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 아무 쪽에도 썩먹지 못하는 것을 무엇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은 아직까지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 아무 쪽에도 썩먹지 못한다.<sup>15)</sup>

김현에게 한편의 소설을 읽는 일은 호기심이기도 했겠지만, 그것은 또 한 금지된 욕망과의 조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과 같은 무서운 구약의 심판과는 다른 인간다운 쾌락에 눈뜨는 일이기도 하다. 그 쾌락은 기독교에 내재해 있는 원죄와 구원의 변증법과 무관하게 인간세상을 괴롭게 하는 사랑과 영혼, 타는 듯한 갈망과 속된 죄의 추구를 여과 없이 노출시키는 세속주의로 충만한 가치를 김현에게 보여준다.

문제는 김현의 모친이 김현에게 던진 다음과 같은 금지의 선언이다. “아무 짝에도 써먹지 못하는 것을 무엇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모친의 발언을 김현은 단순한 꾸짖음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굳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를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문학을 선택하는 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격렬한 거부의 태도를 김현이 내면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김현의 모친이 김현을 꾸짖고 있는 근거는 문학이 현실의 부와 권력 어디에도 유용하게 기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세속주의적 태도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세속주의로 그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인간화된 쾌락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는 김현의 세속적 욕망에 대한 금지의 뉘앙스가 훨씬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쾌락의 금지’인 것이다.

금욕적 합리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김현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왕국이었고,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듯 직업소명설을 내면화하여 재화의 보존과 축적에 따르는 노동의 엄격성을 견지하게 만들었다. 이런 금욕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문학으로 상징되는 향락과 지적 사치는 쓸모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김현의 부모가 “검사나 판사가 되지 않고”라고 말하는 것이 세속적 권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사실

15) 『김현문학전집』, 제1권, 39-40쪽.

이러한 쾌락의 금지는 퓨리탄에게는 일반적인 생활원리였음은 막스 베버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다.

극장은 퓨리탄에게 배척되어 있었다. 또한 성애적이고 외설적인 것에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히 배척하며, 문학이나 예술의 급진적 견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잡담, 사치, 허식의 관념은 예술적 소재로서의 사용이 완전히 배척되어 오직 온당한 유용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만 준비되어 있었다.<sup>16)</sup>

김현이 선택한 문학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성애적이고 외설적인 것”에의 몰입으로 비쳤을 것이다. 실제로 김현이 본격적으로 문학에 입문하게 만든 계기를 이루었던 보들레르를 포함한 프랑스의 시인들이나 희랍의 신화에서 빈번하게 제시되는 것은 금욕주의가 금지하고 있는 “성애”와 “외설”이었고, 그가 또 하나의 아버지로 숭배했던 이국선 목사의 삶은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들이 금지하고 있는 “급진적 견해”로 충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현이 이러한 부모들의 금지를 거슬러 문학에 대한 타는 듯한 갈망을 적극적으로 충족하고자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년기의 그저 스쳐가는 인연에 불과할 법한 민중신학자 이국선 목사와의 인연을 지속했던 것은 금욕적 합리주의로 상징되는 양친으로부터의 ‘분리’의 욕망이 문학을 통해 지양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부모의 세계관의 거처로부터 이탈하여 자립하고자 하는 개별화(individuation)의 근거가 문학이었음을 잘 보여준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16) 막스 베버, 앞의 책, 236쪽.

17) 김현에게 문학의 의미가 부모 세대의 퓨리탄적 세계인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개별화의 의지라는 위의 주장은 특히 그의 몇 안 되는 습작소설에 잘 나타나 있다. 『잃어버린 처용의 노래』(1962), 『인간서설』(1962), 『노숙』(1967) 등의 소설이 공히 보여주고 있는 바는 욕망과 금지 사이에서 찢긴 자아의 깊은 죄의식이다.

세계관적 ‘분리’와 금지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내면화된 ‘기독교적 원죄 의식’은 김현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러 글에서 느낄 수 있는 바지만, 기독교적 원죄는 김현 선생의 유년기에 형성된 심리적 틀의 원형이다. 만지지 마라, 만지고 싶다, 라는 금지와 그것을 범하려는 욕망 사이에 처한 인간의 행태는,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초월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선생의 자기 반성과 보편적 삶의 탐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된다. 선생에게 문학은 그 금지와 욕망의 문제를 동시에 밀고 나가는 방법적 기제였다. 선생의 그 관능적 글쓰기는 그 자체가 이미 금지를 범하는 욕망의 발현이었지만, 그것을 공동체의 문화적 행위로 만들려 하였다는 점에서 신성의 개념을 수용하되 그 금지 체계를 재편하려는 노력이기도 했던 것이다. 거기서 선생의 시야는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넘어 범인류적 삶의 양태로 확대된다.<sup>18)</sup>

실제로 만년(晩年)에 이르기까지 김현은 이러한 ‘금지’의 심리적 억압 속에서 자주 원인모를 죄의식에 빠져들곤 했다. 그가 사망하기 직전이었던 1989년 2월 16일의 일기에 적어놓은 다음과 같은 아버지에 대한 회고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시골에서 내가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책보자기 정도였고, 라디오도, 아버지만 만질 수 있었지, 나는 만질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제니스 라디오를 내 얼마나 끈혹스럽게, 그러나 호기심에 가득차 쳐다보았고, 가까이 가면 언제나 아버지가 엄격하게 말씀하셨다.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 금지의 소리가 언제나 내 속에서 울려 내가 기계를 그렇게 무서워 한 것일까. 만지지 마라. 흰종이는 만질수록 까맣게 된다. 죄를 짓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래서인지 기계를 만진다는 것은 이중의 심리적 끌림을 의미한다. 혐오와 매혹을. 언젠가는 이 불필

18) 이인성, 『죽음 앞에서 나타 다리 씹기』, 『문학과사회』, 1990 겨울호, 1462쪽.

요한 기계들을 부숴버리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결코 기계들을 부숴버리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sup>19)</sup>

이 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김현이 만년에 이르기까지 “만지지 마라”는 아버지의 금욕적 금지와 “흰종이는 만질수록 까맣게 된다”는 타블로 라사를 연상시키는 원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무의식의 움직임의 생생한 귀환이다. 그렇게 김현에게 기독교 사상은 그의 정신의 아주 내밀한 심층까지 장악하고 있는 분명한 실체였고,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끈질긴 무의식적 잔존물(레이먼드 윌리엄스)에 해당하는 것이었다.<sup>20)</sup> 그래서 김현의 비평에서 유독 강렬하게 드러나는 욕망의 미세한 작동방식으로부터 폭력의 거대한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한 문학적 관심은 기독교 사상을 배제하고서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은폐된 심층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은폐되어 있는 것은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지식인 김현에게는 어쩌면 기독교적 원죄의식에 육박하는 또 하나의 죄의식의 흉터가 남아 끈질기면서도 은밀하게 그를 괴롭힌 것이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특히 호남인으로서의 그의 은폐된 죄의식에 대해 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임스 쿤의 『억눌린 자의 하나님』을 구해 읽다. 나는 전라도 사람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 숙고했다. 때로는 혐오하면서, 때로는 연민을 갖고서.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도피의 마음으로.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숙을 거부당한 것.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은 것, 전라도 사람임

19) 김현, 『행복한 책읽기』, 216쪽.

20) 김현에게는 한 잔의 술을 마시는 행위조차 기독교를 상대화할 수 있었던 청년기에나 가능했다: “나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술을 아주 늦게 배웠다. 대학 3학년 때 문우들에게 끌려서 막걸리를 마시게 된 것이 그 시초였는데, 늦게 배운 도적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는 제법 술꾼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김현, 『불꽃의 말』, 『김현문학전집』, 제14권, 370쪽.

에도 불구하고, 80년 이후에도 조용하다는 것 등의 것들이 뭉쳐져 내 가슴에 밀려 들어왔다. 쿤의 책은 내 경험세계의 신학적 의미를 되문게 만든다. 나는 억눌린 자인가? 아니다. 억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완전히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쿤의 언명 중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나의 신학적 한계와 내가 흑인들의 사회적 조건들과 밀착돼 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는 선언이다.

#### 멜빈 톨슨의 노래

오 어찌 잊을손가  
거부당한 우리의 인권을  
오 어찌 잊을손가  
죽임을 당한 우리의 인간성을  
정의를 모독당하고  
호소가 저주로 메아리쳐 올 때  
자유가 문이 닫혔을 때  
오 어찌 잊을 손가<sup>21)</sup>

1986년 5월 27일의 일기에서 김현은 호남인으로서 자신이 끈질기게 감춰왔던 고통에 대해 고백한다. 김현이 이 일기를 쓰고 있던 시점은 전두환 정권 말기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 격화되고 있던 때였다. 아마도 그는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억눌린 한국인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억눌림이란 기독교적 구원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억눌린 자의 하나님』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돌연 전라도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문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오늘도 그런 것이지만 1980년대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전라도는 단순

21) 김현, 『행복한 책읽기』, 29쪽.



히 특정 지역을 지시한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광주항쟁을 거친 한국인들에게 명백한 고통의 상징이었고 수난의 낙인이었다. 노예적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흑인들에게 신의 왕국에 대한 호소는 뒤집어 보면, 뒤틀린 땅의 억압에 대한 분노의 초월적 성화(聖化)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라도는 김현에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는 톨슨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죽임을 당한 우리의 인간성”과 “호소가 저주로 메아리쳐 오는” 부조리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고, “자유의 문이 닫”힌 현실에 대한 고통에 공명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라도 사람으로서 그가 감춰왔던 상처라든가 80년의 광주 이후에도 호남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현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만년의 김현이 황석영의 『장길산』에서 미륵사상을 읽어내고, 미셸 푸코에 대한 연구서인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에서 ‘희생양’ 이론을 자기화하고자 했던 것을 보면, 알레고리의 형태로나마 그는 전라도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명시화될 수는 없었는데, 여기에는 이 땅위에서의 고난과 억압의 수난사를 구약(舊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지했다고 판단되는 ‘속죄양’으로서의 고난과 등치시키는 데서 오는, 김현 특유의 기독교적 사유가 개입했던 탓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한국문학사』의 한 부분에서 일본의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함석헌과 김교신을 포함한 이른바 『성서조선』 그룹이 보여주었던 민족의식을 ‘속죄양 의식’에서 찾고 있는 부분에서 그 흔적을 드러낸다.

그들이 무교회주의를 내세웠다는 것이나, 성서독회를 열고 『성서조선』을 발간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치무라의 연장선 위에서 활동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치무라 사상의 탁월성에 감염된 것은 사실

이지만 보다 깊은 관점에서 관찰하자면, 그들의 무교회주의는 한국 지성의 정신주의와 복음사상의 결합을 뜻한다. 정신주의와 민족주의가 하나의 지적 형태를 필요로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게 선택된 것이 무교회인 것이다. 그 정신주의와 복음주의의 결합에서 생겨난 것이 속죄양으로서의 민족의식이다. 그 속죄양 의식은 피압박민족의 해방 투쟁사의 복음주의적 변형이다. 그것은 지식인을 예언자로 만들며,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sup>22)</sup>

위의 인용문에서 피력한 김현의 분석이 논리적인가 아닌가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함석헌과 김교신에서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인식”하는 편향을 읽어내고, 그것이 그들의 기독교사상의 영향 속에서 배태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김현의 태도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김현이야말로 역사와 인간에 대한 종말론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물론 그는 4.19혁명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읽어냈고 그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 자신의 세대 의식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년기의 기독교사상으로부터 벗어나 유럽의 계몽주의적 사유를 체질화하고자 했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끈질기게 문학비평의 방법론이자 사상으로 수용했던 것은 프로이트를 포함한 범 정신분석학이었다.

문제는 김현의 목시록적 사고에 영향을 끼친 기독교나 프로이트주의나 목시록적 사고라는 관점에서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사고방식이었다는 점에 있다.<sup>23)</sup> 만년의 김현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것은 분명해 보인다.

2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280-281쪽.

23) 프로이트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쾌락원칙의 프로그램이다. 이 원칙은 처음부터 인간의 정신작용을 지배한다. 이 원칙의 유효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프로그램은 소우주 뿐만이 아니라 대우주도 포함하는 전세계와의 적대관계에 있다. 이 프로그램이 완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주의 모든 규칙이 그것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의도는 천지창조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김

프로이트의 예술론 속에는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러나 때로는 너무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성찰이 담겨 있다. 프로이트를 되풀이해 읽으면,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게 운명지워진 존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여기가 역설이다--결정해버린 사람의 비극.<sup>24)</sup>

4.19 세대로서의 김현의 자의의식은 청년기의 김현이 기독교의 끈질긴 영향과 하중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사상을 개별화하기 위해 받아들인 계몽사상의 한국적 대응물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의식적인 사상전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화의 욕망이 강렬해지면 질수록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던 것은 그가 부정하고자 했던 기독교적 사유로의 침잠과 복귀였다. 한 개인의 사상이라는 것 역시 떠남과 되돌아옴이라는 인간 여정의 궤적을 유사하게 반복한다는 것은 김현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 4. 김현의 실제비평과 기독교 사상의 영향

지금까지 우리는 김현의 유년시절을 기독교와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김현 비평의 심층에 드리워져 있는 사유의 기본형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사의 영향과 이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생성된 김현의 문학비평이 어떻게 그의 기독교적 사유와 창조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일 것이다.

김현의 비평적 여정 전체를 검토해 보면, 김현에게 기독교 사상은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그의 등단작인 「나르시스 시론」

석희역, 열린책들, 1997, 257쪽.

24) 김현, 『행복한 책읽기』, 88쪽.

(1962)에서 탐구하고자 했던 주제가 악(惡)의 문제였는데, 이는 기독교적 원죄의식에 대한 해명 없이는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문학사』(1973)를 기술하면서도 안창호의 준비론 사상과 함석헌·김교신의 무교회주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더 멀리는 조선후기의 북학파의 사상을 서학(기독교)의 도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김현에게 매우 본질적인 물음의 근거였음을 보여준다.

김현이 평생에 걸쳐 탐구한 욕망과 죄,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그 자체가 기독교적 사유의 원질이라 할 수 있다. 김현이 사유한 세계의 혼란은 폭력을 포함하여 욕망이 여과 없이 표출될 때 나타나며, 그것을 억압할 때 또 다른 혼란이 나타난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세속주의의 견지에서 김현은 욕망에 대한 끈질긴 유희를 긍정하지만, 그것을 승화의 형태로 약화시키고 증류시키는 ‘과잉의 제거’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았고, 문학은 그 욕망의 노골적인 발현과 승화 사이의 긴장이 탄력적으로 제기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현이 현실보다는 그것을 중계하는 언어에 대한 민감한 자의식을 보여주었는데 이 역시 기독교 사상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가 보들레르, 발레리, 말라르메로 상징되는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에 경도되어 한국의 시단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면모의 핵심에는 한편에서는 기독교 사상과 대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초월적 구원이라는 기독교 사상의 기본형식을 습합시킨 김현 특유의 문학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김현이 정신분석학과 신화분석을 통한 문학적 분석의 유형화를 꾀한 것 역시 기독교 사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가령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라는 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라르에 대한 김현의 분석은 뒤집어 보면, 지라르로 상징되는 기독교적 성화(聖化)와 희생양 이론에 대한 공명이라 할 수 있다.

김현은 시종일관 현실을 비극적으로 조명하는 편향을 버릴 수 없었다. 김현은 등단 초기부터 비극적 세계관의 문제를 조명했으며, 초기 분석에

서의 광인(狂人)에 대한 관심이나 후기 평론에서의 폭력에 대한 분석 모두가 실상은 이러한 비극적 세계관의 흔적이라 판단된다.

김현비평은 한국문학의 사상사적 전개에서 세속주의와 경건주의의 습합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여준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기독교는 함석헌 식의 씨알론과 같은 고난의 시학으로 수렴되지도 않았고, 민중주의와 같은 집단적 구원 모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구원의 개인주의’에 시종일관 몰입했고, 사건의 단독성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김현의 비평에 기독교 사상이 미친 영향은 프랑스의 안센주의가 초래한 비극적 세계관과 현실개입의 태도와 매우 닮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김현의 유년시절과 기독교 사상의 만남이라는 문제에 주목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필자는 김현의 실제비평과 기독교 사상의 영향문제를 분석적으로 검토한 또 한편의 논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김현의 문학비평에 끼친 기독교 사상의 영향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업은 추후를 기약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고재식, 『이국선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 수유한신교회 자료실
- 김영명, 『정경옥 신학 다시 읽기』, 한국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월례발표회, 2007. 9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종선 역, 두리, 1987
- 신미경, 『프랑스 문학사회학』, 동문선, 2003,
-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다산글방, 2003
- 이병구, 『백제약방과 약유통 반세기』, 『보건신문』, 2002. 4. 16.
- 이인성, 『죽음 앞에서 낙타 다리 씹기』, 『문학과사회』, 1990 겨울호
- 전집간행위원회, 『김현문학전집』, 문학과지성사, 1996
- 지그문트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역, 열린책들, 199

<Abstract>

KIM Hyun's childhood and Christian Thought  
- Kim Hyun's Origin of Literary Criticism

Lee, Myung-Won

This article critical of the literary critic, Kim Hyun's prototype of experience on the basis of the Christian religion is written to say that there were. True to form, He thought that Christianity had become the prototype of experience, and the internalization of Christian thought and the desire for separation from it led him to accept the idea as a 4.19 to create a revolution of bourgeois democracy in Western Europe was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Enlightenment Following acceptance of historic Pietism, Hyun-specific form of literature that attention is the hypothesis of this paper.

To prove this, in this paper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his criticism of his household, and are judged, lost, Jeong Gyeong-ok(정경옥), my uncle was a theologian of historical criticism, he also mentioned as the father of one of the realist liberation theology pastor Yi Guk-Seon(이국선) and inherited from his father, the ascetic rationalism is considering.

Through this review, we obtained the conclusion follows.

When you examine the entire journey of the critical Hyun, Kim Hyun to the Christian religion is considered a very powerful effect, lost. Winning his debut, "Poetics Narcissus" (1962) to explore the subject in the bad was the problem, which the Christian consciousness of original sin, without an explanation for the in-depth

analysis is a difficult problem.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1973), while the technical ideas and Ham Suk-Huen(함석헌) and Kim Gyo-Shin(김교신) precise analysis of the Dechurchism attention, and further the ideas of the late Joseon bukhakpa(북학파), Seohak(서학), and is described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Hyun ideas so essential to the question of the evidence shows yeoteumeul.

Kim-Hyun over a lifetime exploring the desires and sin, and salvation of the Christian reason for the problem itself can be called the original order. Of secularism in terms Kim-Hyun desire for the persistent temptation positive, but it turns in the form of weakening the distillation by the 'excess removal of' the real alternative is seen, the literature of the desire explicit expression and the sublime tension between the two elastic were considered to be successful when filed.

Kim-Hyun, rather than a reality to relay it to the language, also showed a sensitive self-consciousness in relation to Christianity and a lot of room to discuss. Cheong, Hae psychoanalysis literary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myth who makes the type of thing, too angry to find traces of Christian thought can be. For example, 『René Girard or structure of violence』, was symbolized by the torch and the victim can be said for the theory.

Key Words : Christian thought, Liberation theology, Historical criticism, Sin consciousness, Ascetic rationalism

■ 논문접수 : 2011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1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1년 4월 15일